

마티스 회화의 색채 자율성이 현대 패션디자인에 미친 영향

이 은 경

대전대학교 패션디자인 · 비즈니스학과 부교수

The Influence of Color Autonomy in Matisse Paintings on Modern Fashion Design

Eun-Kyung Lee

Associate Prof. Dept. of Fashion Design · Business, Daejeon Univ.
(2001. 6. 26 투고)

ABSTRACT

The painting style has much influenced on the creativity of design i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modern fashion. This fact tells that pure art and fashion design have the same purpose in the end. In this paper, the color Autonomy of Matisse was analyzed and how its result influences on modern fashion design was investigated. Matisse is, in fact, the leader of Fauvism and the painter who brought the Fauvism painting to its perfection in the purest state. Matisse achieved the revolution of new color with only the color in expressing formative factor. Matisse's color autonomy are fusion technique, flatness, decoration, simplicity, etc.

To sum up the influence that this autonomy played on modern fashion design, intensive pure color expression, strongly-supplemented color effect among primary colors, decoration of color, simplicity of color, that is to say, he gave rise to the revolution of color. Many modern designers are applying this method to the theme of fashion and motive, color the technique of expression. Thanks to this, the new formative artistic expression could be adapted in fashion, and it also induced the inspiration of original design, with great contribution to bringing the era of its own distinct individualism in modern times.

Key Words : Modern fashion design(현대 패션 디자인), Matisse paintings(마티스 회화),
Color autonomy(색채 자율성), Fauvism(야수주의)

I. 서 론

미술양식은 현대패션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디자인의 창의성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순수예술과 패션디자인에서 표현되는 조형요소들이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고, 또 패션은 인간의 내적인 미의식을 표현하는 예술의 한 분야로서 예술이 창조되는 시대의 사회적 욕구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홍숙(1988)은 복식도 다른 조형예술과 마찬가지로 형태, 선, 색채, 재질 등의 조형요소들을 통하여 예술양식을 수용하며 개성적인 형식으로 예술양식의 특성을 표출한다고 하여 복식의 조형 예술성을 재조명하고 있다.¹⁾

패션디자인의 최종 목적은 하나의 감각산업으로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자 디자이너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조형예술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과정에서 순수예술의 단순한 도입보다는 작가의 순수한 정신적 근거를 고찰하여 패션과의 결합을 통한 용해된 예술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에 이르는 모든 예술영역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의 색채를 고찰하여 그 자율성이 현대패션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패션디자인과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패션디자인에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은 마티스의 색채에 대한 회화사적 배경과 의미, 그 표현방법과 특성을 고찰하고, 마티스의 내적 내용인 색채 자율성과 현대 패션디자인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여 그 현대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적 자료분석을 병행하였다. 마티스의 색채 자율성에 대해서는 문헌 자료를 근거로 고찰되었으며, 마티스 작품의 고찰은 대표작을 선별하여 문헌, 작품집,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20세기 현대패션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문헌, 작품집, 사진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II. 야수주의 탄생과 전개과정

1. 색채 자율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20세기초의 미술은 반 자연주의를 기초로 한 혁신적인 화파와 사조가 혼돈을 거듭하면서 수없이 많은 양식이 등장하였으나 그 최초의 막을 연 것은 야수주의 운동이었다.²⁾ 야수주의란 명칭은 1905년 가을 살롱 도톤느(Salon d' Automne)에 출품한 젊은 화가들이 강렬한 색채와 대담한 데포르마시옹(deformation, 대상과 형태의 변형) 등의 새로운 양식으로 그린 작품에 대하여 당시의 비평가인 루이 복셀르(Louis Vauxcelles)가 야수들이라 부른 것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³⁾ 야수주의는 전통적인 화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표현기법을 시도하려는 급진적인 화가들의 모임으로 의미가 있다. 이 새로운 화법은 1899년, 그룹에서 항상 주도적 인물이었던 마티스를 중심으로 블라멩크(Maurice de Vlaminck, 1876-1958), 드랭(Andre Derain, 1880-1954), 뒤피(Rauol Dufy, 1877-1953) 등의 야수주의 화가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들 회화의 특징은 화면에서 자연주의적인 기법을 추방함으로써 원근법, 명암법, 입체적 표현 등이 사라진 것이었다. 화면에 표현된 것은 색채와 대상의 윤곽뿐이었으며, 강렬한 색채, 대상의 변형, 단순화의 표현양식을 사용하였다. 결국 화면에서 삼차원적인 표현요소를 추방하여 새로운 형을 창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야수주의 화가들은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 고갱(Paul Gauguin, 1848-1903), 세잔느(Paul Cezanne, 1839-1906)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작품의 특징은 색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었다. 색채가 눈부시고 난폭하며 충격적인 순색에만 의존하고 각 색조간 직접적인 대비로 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대담한 터치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어 색채의 표현력을 더욱 생생하도록 하였다.⁴⁾ 이들은 색채 자체에 대한 가치 발견을 목적으로 색채의 직접적 효과를 강조하였으며 빨강·노랑·녹색과 같은 순도 높은 원색을 튜브에서 그

대로 내어 대답하게 사용하였다. 이 대답한 원색의 사용은 감성을 해방시킨다는 표현의 혁신을 가져왔으며 그것은 인간의 감정을 외계와의 관계에서 해방시켜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을 낳았다.⁵⁾

마티스의 스승이었던 모로우(Gustave Moreau)는 “자연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예술 출현을 위한 단순한 구실에 불과하다. 예술이란 단순한 조형성이라는 수단에 의한 내부의 감정 표현을 철저히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야수주의 형성의 중요한 암시로서 야수주의로의 길을 준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야수주의 화가들은 원색적인 색채에 대해 정열을 나누었고 색채가 본래 지니고 있는 색채 자체로서의 표현성을 되찾게 한다는 새로운 기능을 색채에 부여했던 것이다.⁶⁾ 야수주의 화가들에 있어서 그러한 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색채 그 자체로서의 강렬한 원색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과 순도 높은 원색을 감성의 해방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창조적 도전 정신이었다. 야수주의는 모방적인 색채를 거부하고 순수한 색채로서 보다 더 강하고 충격적인 동시 반응을 얻는 것으로 색에는 광휘가 있다는 것이다.⁷⁾

따라서 마티스는 19세기 말의 중요한 기법들을 한 화면에 사용하는 ‘혼합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기법은 보다 발전하여 1906년 ‘평면적인 색’으로 바뀌게 되고, 평면적인 색은 ‘장식화’와 ‘단순화’로서의 자유로운 표현을 얻는데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2. 야수주의의 조형성

색채를 강조한 야수주의 특성은 필연적으로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색채 사용에도 소수의 가장 순도 높은 색조로 제한하였다. 이는 색(色), 면(面)이 보다 단순한 구도에 연결되어 색 자체에서 출발하는 조형가치의 관점에서 고려한 형, 선, 색을 종합시켜 이룬 조형적 작품으로서의 새로운 양식을 창조했던 것이다.⁸⁾

야수주의는 신인상주의의 가장 순수하고 밝은 색을 사용했지만, 감정적인 주제는 나비파(Nabis)와

문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예술 경향을 종합한 것이다. 또한 야수주의 화가들은 비 서구 문화에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특히 아프리카 조각에 대한 관심은 야수주의 시기에 처음 사용되었다.⁹⁾

마티스는 야수주의의 실제적인 리더이면서 야수주의 회화를 가장 순수한 상태로 완성시키고, 색채가 갖는 표현성과 조형성을 완벽하게 통합한 화가였다. 그는 평탄한 색, 면의 장식성을 대담한 테포르마시옹과 색채의 모뉴멘탈(Monumental)한 구성으로 바꿈으로써 야수적 체질을 심화 발전시켰다. 야수주의가 색채를 통한 감성의 해방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야말로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색채 화가로서의 그 위치를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¹⁰⁾ 마티스는 지중해 지방의 강렬한 빛에 깊은 감흥을 느끼며 회화를 선(線)의 구속에서 벗어나 색채 그 자체로서 추구하려고 하였으며, 색채의 보색대비 효과로써 야수주의 회화의 그 가치를 알려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보색대비 효과로써 강렬하고 응축된 색, 면의 평면성을 표현하면서도 그러한 대비가 나타내 주는 광선은 가장 활기차고 눈부신 것이었다. 마티스는 야수주의에 대해 “야수주의는 나에게 있어서 방법의 시련이었다. 그 방법이란 빨강, 녹색, 파랑을 나란히 놓아서 그것들을 표현적으로 또는 구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후일 ‘무엇이 야수주의를 탄생시켰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마티스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표현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이 시기에 마티스는 과거와 현재의 많은 기법들로 인해 혼란스러워 한 나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자문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야수주의로 출발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다.¹¹⁾

III. 마티스 회화의 색채 자율성

마티스는 그의 회화 속에서 종전의 색채와는 다르게 새로운 ‘색채 해방’을 완성시킴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원색시대를 이미 시사하고 있다. 20세기 위대한 색채 화가 중 한사람인 마티스는 새로운 기법을 창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 결과, 회화 목적이 색채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칭안하였고

그 만의 색채 세계를 이룩한 것을 마티스 회화의 색채 자율성이라 칭할 수 있다. 이화익(1983)은 마티스의 색채 자율성을 혼합기법에서의 색채, 평면적인 색채, 색채의 장식성, 색채의 단순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 혼합기법

마티스는 색채만으로 모든 조형요소를 표현하는 새로운 색채혁명을 이룩했는데 이것을 혼합기법이라 한다. 즉 인상주의의 빛을 추구하는 색채로부터 빛이 들어 있는 색채로, 신인상주의의 들뜬 색채로부터 혼들림 없는 색채로 변화시켰다. 또한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 중 고호의 표현적 요소를, 고갱의 장식적 요소를, 세잔느의 지속적인 요소를 고루 받아들인 후 그것들을 새롭게 잘 조화시킨 것을 말한다.

(그림 1)은 자연의 세계에서 추상적인 세계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조화로움을 위한 평면적인 색, 면과 장식적인 선을 강조한 곡선적인 리듬감은 음악의 조화와 같은 색의 조화를 추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¹²⁾ 강렬하면서도 단조로운 색, 면과 심한 굴곡을 보이는 윤곽선 그리고 철저한 단순화 등에서 마티스 회화의 요약이라 할 수 있다.

2. 평면성

마티스 회화의 평면적인 색은 광선을 산출해 내는 색채이며, 색채의 대비를 통해 견고하면서 긴장된 면의 평면성을 강조한다. 빈 화면에 이러한 색채들이 각각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도 가장 활기차고 눈부신 광선을 만들어 낸다. 마티스는 “색, 면에 의한 구성을 해야 한다. 주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색채의 강렬함을 추구하라”고¹³⁾ 하였듯이 색채의 대비를 통하여 빛을 추구하였다.

(그림 2)는 삼차원의 실내공간을 표현하는 것임에도 화면의 거리감은 없고 벽과 탁자와 실내의 바닥이 모두 동일한 평면 위에 놓여 있다. 이 그림에 나타난 색은 대상의 묘사에서 벗어나, 화면 위에서 색채와 형태의 정밀한 구성체가 되었다. 따라서 색

채는 화가의 적감적인 파악을 통해 자유롭게 선택되고, 오직 화면 내에서의 완성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배열된다. 또한 마티스는 물감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 색채를 독립된 구성 요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Henri Matisse(1905)
Oil Sketch for *Le Bonheur de Vivre*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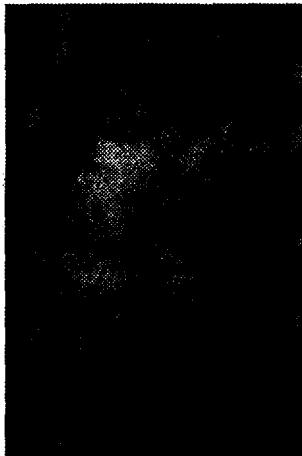


<그림 2> Henri Matisse(1906)
Still Life with a Red Rug
Museum de Grenoble

3. 장식성

마티스에게 있어서 장식적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특성을 지니며, 완벽하게 장식적인 그림은 완전히 표현된 그림을 의미했다. 마티스는 “현대예술의 특징은 우리들을 생활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 그 것은 그 주변을 색채로서 즐겁게 하고 색채는 우리를 안정시키며”라고 하여 회화의 장식적인 역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림 3)은 마티스가 알제리아의 비스크라(biskra)를 회상하면서 그린 누드화로서 검은 윤곽선의 강한 효과와 푸른 그림자를 이용한 여체의 형상 데포르마시옹은 야수주의의 표현양식을 승화시키고 있다. 작품의 배경이 도식적인 수평선 처리로 매우 단순화되어 있다. 반면 서 있는 소년에게 예기치 못하는 주홍색을 휘감아 놓은 충격적인 요소의 가미와 굵고 검은 윤곽선으로 인물의 율동감을 강조하면서 정화된 순수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색채에 있어서 푸른 하늘과 들판의 초록으로 색채 대비를 이루고 학면은 파랑·초록·주홍 세 가지 색만으로 격렬함과 풍부함을 함께 나타내주고 있다.¹⁴⁾



<그림 3> Henri Matisse(1907)
Blue Nude: Memory of Biskra
The Baltimore Museum of Art

4. 단순성

마티스의 단순성은 형태뿐 아니라 색채에서도 소수의 색으로 제한하여 색의 사용에 대한 단순성을 보여준다. 그는 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선택과 조직화라고 말하면서 “음악에서 7가지 음조로 모든 것을 구성하는 것처럼 그림에서도 소수의 색으로 모든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⁵⁾ 그러므로 마티스는 ‘생략의 천재’라고 불리워지며 그의 그림 속에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이 생략

되어 단순히 암시되고 있다.¹⁶⁾ 마티스가 추구한 것은 그의 그림 속에서 단순화를 통해 결국 종합적이고 통일된 그림을 그리려 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4> Henri Matisse(1907)
Le Luxe II
Statens Museum for Kunst Copenhagen

(그림 4)의 인물들은 밝은 고동색에서 붉은 자주색을 거쳐 분홍색으로 흐릿하게 이어져 있다. 배경도 따듯한 색과 차가운 색으로 불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인물의 세련된 아라베스크와 생략적인 인체묘사는 마티스의 미래에 나타날 장식적이고 단순화된 그림들을 예시해 준다. 이에 대해 발로통(Felix Vallotton)은 “오직 하나의 선으로 그의 감각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는 쇠연술의 도안방법이 마티스에 의해 채택되었다”라고 하였다. 이 그림은 단순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 것으로 마티스는 이에 대해 “나는 우아함과 매력을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근본적인 선으로 몸을 요약하려고 한다. 그리하면 처음 본 순간에는 매력이 덜 하겠지만 오랜 기간을 거치게 되면 새로운 이미지를 발산할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⁷⁾

IV. 현대파션에 나타난 마티스의 색채 자율성

현대파션의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특징은 순수예술의 발전과정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패션은 소재의 특성을 살려서 자연미를 추구하는 디자인이 시작되었다. 이는 점차 형태의 다양함을 가져왔고, 강렬한 색채 사용 및 단순한 형태 표현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현대패션의 조형적 특성은 마티스 회화의 조형적 특성과 맥을 같이 한다. 즉 마티스의 색채 자율성이 혼합기법, 평면성, 장식성, 단순성 등은 당시의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데 동시에 활동했던 펠 뽀아레(Paul Poiret)는 강렬한 색채를 패션에 도입하였다. 그는 원색의 강렬함을 조화시켜 제작한 프린트 직물을 이용하여 디자인을 하였다. 또한 현대에 활동하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패션의 테마, 모티브, 색채, 표현기법 등에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마티스의 색채 자율성은 패션의 새로운 조형 예술적 표현을 가능케 하였고 혁신과 독창적인 디자인의 영감을 유발시켰으며, 오늘날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시대로 강한 감각성을 추구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다. !

마티스의 색채 자율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대패션에 표현된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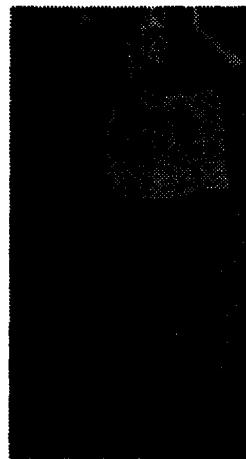
1. 강렬한 순수색채의 표현

패션에 표현되기 시작한 새로운 색채는 종전의 흐릿하고 얇은 파스텔 색조에서 과감히 벗어나, 마티스 회화에 나타난 야수주의 경향처럼 강렬하고 화려한 원색의 색채와 대조효과가 큰 원색끼리의 배합으로 뚜렷한 이미지를 창출하였다. 즉 색채 강도에 의하여 표현을 강조하는 한편 가장 순도가 높은 강렬한 원색을 패션디자인에 도입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디자인에서의 색채는 자연 속의 대상인 고유색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고, 의상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5)는 Douglas의 작품으로 마티스 회화에서 즐겨 사용하던 강한 색상의 대비, 대담한 데포르마시옹을 현대패션에 적용한 디자인이다. 빨강, 노랑, 파랑의 순수한 원색을 검정 바탕에 배열함으로써 단순한 구도 속에서 더욱 화려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그림 6)은 Christian Dior의 작품으로 마티스 회

화의 관능적이면서 개방적인 색채와 대담한 데포르마시옹을 이용한 디자인이다. 강도 높은 순색인 파랑, 노랑, 자주를 사용하여 원시적 감정과 원초적 생명감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현대적 아름다움을 잘 나타낸 작품이다.



<그림 5> 삼원색의 강렬한 색채를 이용한 원피스
Douglas. Bullis(1987).
California Fashion Designers. p.72



<그림 6> 대담한 데포르마시옹을 이용한 야회복
Christian Dior. Mode et Mode, 95. 4. p.290

2. 평면성

마티스 회화의 특징은 원색에 가까운 순색을 사용하여 색채가 눈부시고 각 색조간의 직접적인 대비로 화려한 색상대비가 자주 보이며, 심지어는 보

색의 색채가 인접해 있어 더욱 강한 이미지가 부각된다. 보색 대비효과로서 강렬하고 응축된 색, 면의 평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평면적인 색은 빛을 산출해 내는 색채이며 색채들은 빈 화면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장 활기차고 눈부신 광선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대비가 나타내 주는 빛은 가장 생동감있고 눈부신 것이다.

(그림 7)은 완벽한 색채조화를 시도한 작품으로 밝은 색채대비가 순수하고 밀도 높은 순간의 기쁨을 표현해 주고 있다.

(그림 8)은 강렬하고 대담한 원색대비를 이용한 원피스이다. 드레스의 중심부분에 사용된 주황, 연두, 파랑이 검정 바탕에 놓임으로써 마티스 회화에



<그림 7> 밝은 색채대비를 이용한 원피스
Adrienne Vittadini. Vogue Italia, 92. 4. p.500



<그림 8> 원색적 색채대비를 구사한 원피스
Birrell Vera(1972). The Textile Arts. p.38.

나타난 검정의 광범위한 사용, 굵은 윤곽선 사용 등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이로써 깔끔하고 세련된 현대적 감각을 나타내 주고 있다.

3. 장식성

마티스의 회화작품에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동방은 화려하고도 관능적인 도취를 불러일으키는 꿈의 세계였다. 다채로운 색상과 풍요한 환상을 자아내는 동방의 직물, 일본의 판화, 비잔틴의 모자이크 등은 그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마티스는 1906년경부터 몇 번에 걸친 아프리카 여행에서 아라베스크 무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차츰 그의 내면 속에서 엑조티시즘을 크게 자극하였고, 그것이 곧 색채의 단순화를 통하여 장식성을 달성하게 된다.¹⁸⁾

(그림 9)는 마티스 회화작품에서 이용된 아라베스크 무늬를 모티브로 한 직물로 디자인한 것이다. 마티스에게 중요한 것은 화면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밝은 색채이며 그 색채에 의해 생기는 풍부한 장식적 효과이다. 이 작품에서의 장식성은 황량한 단색 배경에 구석까지 활력을 준 아라베스크 문양에 의해 강조된다.



<그림 9> 아라베스크 무늬의 원피스
Katherin Hamnet. Collection II, 96. S/S

(그림 10)은 색상, 형태, 주제가 화려하고 장식적인 디자인으로 장식된 꽃무늬가 아라베스크 선과

충돌되는 듯 하지만 그 대조가 마티스가 노리는 장식적 효과를 한층 더해 주고 있다. 회화작품의 장식적 요소를 잘 이용해 우아하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자아낸 작품이다.



<그림 10> 장식된 꽃무늬와 아라베스크 선
Enrico Coveri. Vogue Italia, 94. 3. p.52

4. 단순성

기존 회화의 표현방법인 종이 위에 텁상을 하여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 속에 색을 떼움으로써 작품을 완성시키는 복잡한 과정과는 다르게 마티스는 색칠한 종이 위에 직접 텁상을 하여 형태를 결정지어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즉 극도로 화면을 간결하게 억제한 작품에서 원근법과 명암법, 입체적 표현을 배제하는 대신 색채와 윤곽선만을 이용하여 화면과 대상을 단순화시켰던 것이다. 또한 색채 면에 있어서 마티스는 작품을 위해 두세 가지 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조형적 형태감을 단순화시킴으로써 내적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마티스의 구성방법은 패션에 있어 과장된 장식을 피한 단순한 선으로 직선에 가까운 곡선을 주로 사용하여 매끄러운 straight line(똑바른 선)과 sleek line(매끄러운 선)으로 표출되었다. 형태의 객관적 묘사가 아닌 색채의 알맞은 배분에 의한 새로운 디자인이 시도되었던 것이다.¹⁹⁾

(그림 11)은 조용하고 맑은 느낌의 동일 색상 톤에서 색채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한 마티스의

색채 특성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아이보리와 브라운을 이용하여 조화를 피하고 단순한 형태를 시도한 이 작품은 명쾌하면서도 단순한 작품으로 이지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12)는 억제된 색의 알맞은 배분과 전체를 지배하는 단순한 기하학적인 구도가 서로 작용함으로써 간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디자인이다. 자칫 단조로움과 딱딱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검정 드레스를 노랑 선을 이용하여 리듬감을 줌으로써 오히려 생명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림 11> 단순한 형태와 부드러운 색의 대비
Betty Jackson. Collection II, 96. S/S



<그림 12> 노랑 선을 이용한 검정 드레스
Fashion Today. 95. 3

V. 현대패션 디자인에 있어서의 활용성

이상과 같은 마티스 회화에 나타난 색채 자율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분석을 토대로 이를 현대패션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색채의 강도에 의한 표현을 강조함으로써 색채를 자연 속의 대상인 고유색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한다. 즉 의상의 색채에 있어서 자연 색채의 재현적 기능을 떠나 새로운 색채를 창조해 냄으로써 기존 의상에 나타났던 배색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둘째, 색과 색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연관성이 있다. 밝은 색은 어두운 색의 농도를 뚜렷하게 해주고 어두운 색은 밝은 색의 밝기를 뚜렷하게 해준다. 따라서 무채색의 배경처리를 이용 보색의 대비효과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깔끔하고 세련된 현대적 감각을 연출해 낸다. 셋째, 의상의 디자인과 직물 무늬에 있어 동양적이며 이국적인 분위기를 이용함으로써 투명 속에서 비쳐 나오는 듯한 기묘한 색을 연출한 후, 자연광과 인공광을 차별화 함으로써 신비스러우면서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넷째, 색상이 칠해진 종이 위에 직접 떡상을 하여 형태를 결정지어 단순화 작업을 시도한 마티스의 색채 표현기법을 이용하여, 웃감을 가지고 직접 형태를 결정짓는 단순화 작업을 한다. 즉 원색의 도식화같은 패턴을 의상에 이용하여 그래픽적인 이미지의 의상으로 색다른 표현을 시도한다.

VI. 요약 및 결론

마티스 회화의 색채에 대한 자율성을 고찰하여, 마티스의 색채 자율성과 현대 패션디자인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그 현대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세기 위대한 색채화가인 마티스는 종전의 색채와는 다르게 새로운 색채해방을 완성시켰으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색채 특성을 이룩하였다. 마티스는 색채가 갖는 표현성

과 조형성을 완벽하게 통합하고 격렬한 표현 대신 평탄한 색, 면의 장식성을 대담한 데포르마시옹과 색채의 모뉴멘탈한 구성 위주를 보임으로써 야수적 체질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마티스는 19세기 말 중요한 기법들을 한 화면에 사용하는 혼합기법을 시도하였으며, 이 기법은 평면적인 색으로 바뀌어 되고, 평면적인 색은 색채의 장식화와 단순화로서의 자유로운 표현을 얻는데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마티스의 색채 특성은 패션 디자이너들을 강하게 자극하였으며, 패션의 야수주의자인 뿐 아니라 르 아레를 시작으로 강렬한 색채를 현대패션에 도입하였다. 종전의 흐릿하고 옅은 파스텔 색조에서 과감히 벗어나 야수적인 강하고 밝은 원색의 사용과 생생한 원색끼리의 대비효과로서 의상에 있어서의 색채에 대한 혁신을 일으켰다. 이러한 양상은 마티스와 동시대의 패션뿐만 아니라 현대패션에서도 그대로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 활동하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패션의 테마, 모티브, 색채, 표현 기법 등을 패션디자인에 적용하고 이는 패션의 새로운 조형 예술적 표현을 가능케 하였고 독창적인 디자인 영감을 유발시켰으며 오늘날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시대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다.

마티스의 색채 자율성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색채 강도에 의하여 표현을 강조하는 한편 가장 순도가 높은 강렬한 원색을 패션디자인에 도입하게 되었다. 둘째, 원색에 가까운 순색을 사용하여 색채가 눈부시고 각 색조간의 직접적인 대비로 더욱 강한 이미지가 부각됨으로써 패션에 있어 색채에 대한 혁신을 가져왔다. 셋째, 밝고 가벼운 색채, 검정의 광범위한 사용, 아라베스크 무늬, 굵은 외곽선 등을 사용함으로써 색의 장식성에 도달하게 되었다. 넷째, 형태의 객관적 묘사가 아닌 색채의 알맞은 배분에 의한 디자인의 단순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상과 같은 마티스 회화에 나타난 색채 자율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분석을 토대로 현대패션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의상의 색채에 있어서 자연 색채의 재현적 기능

을 떠난 새로운 색채를 창조해 낸다.

- 무채색의 배경처리를 이용하여 보색의 대비효과를 좀더 효율적으로 한다.
- 이국적인 분위기를 이용함으로써 신비스러우면서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 원색의 도식화 같은 패턴을 의상에 이용하여 그래픽적인 이미지의 의상을 표현한다.

참 고 문 헌

- 1) 정홍숙, Art Nouveau와 Art Deco 예술양식을 통해 본 복식의 조형 예술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p.36.
- 2) 장문호, 서양미술사, 서울: 협성출판사, 1980, p.95.
- 3) 오광수, 서양근대회화사, 서울: 일지사, 1987.
- 4) 김용원, 야수주의 운동의 회화사적 위치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5) 박래경, 마티스, 세계의 미술 37, 서울: 서문당, 1982.
- 6) Rosemary Lambert, The 20th Centur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7) John Elderfield, Matisse,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1978.
- 8) 주명희, 야수주의의 영향을 받은 현대의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9) 이수임, Henri Matisse 회화의 연구-장식성을 중심으로, 홍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10) 오광수, 서양근대회화사, 서울: 일지사, 1987.
- 11) Flam, D, Jack, Matisse on Art, New York: Dutton, 1978, p. 58.
- 12) 이화익, 마티스 그림에 나타난 색채의 자율성,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13) Flam, D, Jack, Matisse on Art, New York: Dutton, 1978, p.59.
- 14) Jacques Lassaigne, Matisse, 이화숙 역, 서울: 열화당, 1980.
- 15) Werner Haftman, Painting in the Twenty Century, New York: Harry N. Abramain, 1969.
- 16) Abrams, 유흥준 역, 회화의 역사, 서울: 열화당, 1983.
- 17) E. H. Gombrich, The Story of Art, New York: Phaidon Inc., 1968.
- 18) 이봉덕, 야수주의와 현대의상에 관한 연구, 숙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19) Dougias Bullis, California Fashion Designers, New York: Gibbs M Smith, Inc., 1987.